



“가족들 건강하고 장사 잘 되기를...”

죽발·보쌈가게 운영 최인석·박인화 부부

간성을 금강농협 맞은편에서 죽발·보쌈전문점 ‘최왕골 죽발’을 운영하고 있는 최인석(41세)·박인화(43세)부부는 “8년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새해에도 가족들 모두가 건강한 가운데 장사를 지속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소망했다. 이들 부부는 “지난해는 어려운 경기로 인해 사람들이 힘겨워했다”며 “새해에는 장사가 잘 돼 신바람난다는 희망찬 이야기들이 전해져오기를 기대한다”고 했다.



“소값 올라 축산농가들 근심 덜었으면”

죽왕면서 축산업 종사 홍대성씨

죽왕면 향목리에서 2650㎡의 면적에서 소 180두를 기르며 축산업을 하고 있는 홍대성씨는(65세) “지난해는 소값이 큰 폭으로 떨어져 저를 비롯한 축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이 따랐었는데, 새해에는 소값이 올라 안정적인 가격이 형성돼 모든 축산 농가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소 사육에만 몰두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했다.



“양가 부모님과 가족들 건강하고 행복한 새해”

하나로마트 근무 주부 전성은씨

간성을 대명아파트에 거주하며 거진농협 현내지소 하나로 마트에 근무하고 있는 전성은(41세) 주부는 “남편과 두 아들, 그리고 양가 부모님 등 온 가족이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바라고, 아울러 고성지역의 경기가 활력이 생겨나길 희망한다”고 했다.



“부산 가족들 건강하길”

55연대 구태성 일병

부산이 고향으로 55연대 1대대 2중대에서 군 복무중인 구태성 일병(21세)은 “새해에 연대장님을 비롯한 55연대 소속 모든 장교 및 장병들이 안전사고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했다.

아울러 “부산에 있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뤄지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”고 덧붙였다.



“거진 일대 사람 복적이던 옛 모습 되찾았으면”

개인택시 운영 이광일씨

거진을 행랑골에 살고 있으며 고성군에서 개인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광일씨(59세)는 “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는 경기가 긴 터널을 벗어나 새해에는 택시영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과거 명태가 많이 잡혀 거진 일대가 사람들로 복적이던 옛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”고 했다.